



사랑을 나누는 방편

광주 스테이크 부장
박 병 규

작년 10월 26일, 돌연한 강추위 속에 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던 일이 어제 만 같은데 해가 바뀌어 8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하루 전 광주 스테이크가 탄생 될 때 분주한 일정을 무릅쓰고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참석하셔서 광주 스테이크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된 복음이 이땅에 전해진지도 4만 세기가 넘었고, 이 기간에 우리는 6개의 스테이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과 긍지를 맛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눈을 돌려 볼 때 이같은 외적 성장에 견줄 내적 성장을 아직 못이루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내면을 충실히 다질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스스로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도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회원이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준비

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바람직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방문 교육과 가정 복음 교육을 마련하셨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감독과 정원회 회장을 대표하며 주님의 대표자로 각 가정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대표할 기회는 참으로 영화로운 시간입니다. 또한 이 부름은 성스런 것이며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가 방문받는 가정에 축복을 어떻게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가정 복음 교사로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온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이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교성 20:47)하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의 임무의 하나로 방문받는 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기도를 등한히 여길 때 우리의 신앙은 시들며, 매일매일 주와 의논하고 열렬히 기도드리며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생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음의 축복도 오십 스미스의 기도로 비롯되었습니다. 가정 방문 교사의 또 하나의 임무는 가족이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의 의무로 교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가족의 의무를 이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 25: 35~36)

행하며, 신전 사업에 참여하고, 예언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방문받는 가족이 이같은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이에 따르는 축복도 받게 할 것입니다. 의무를 일깨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한 사랑과 관심과 인내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사랑과 인내로 다음과 같은 주님의 칭찬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마 25: 35-36) 위의 상황은 우리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할 때 실제로 수없이 당면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순천 지부의 한 형제님은 위와 유사하게 회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을 위해서 성도의 벗을 구입해 주고, 몸이 불편한 회원에게는 약을 사주었으며, 어느 가정에는 나무를 심어 주고 때로는 남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기도 하는 등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담당한 가족들은 비활동 회원일지라도 교회를 아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을 자신에게 베푼 사랑만큼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네 형제중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40)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름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큰 소명감과 믿음을 갖고 합당한 준비를 갖추어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방문을 받는 분들은 방문자가 누구이든 문자 그대로 주님의 대표자로 여겨야 하며, 겸허하고 정중히 맞이하며 전해지는 메시지에 경청하고 원하는 보고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얻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마 10: 40-41)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보다 큰 사랑과 보다 깊은 뜻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훌륭히 수행할 때 교회는 활력이 넘치고 방문자나 방문받는 자가 모두 축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시다. 아멘. *

로스앤젤리스 한국 지부 문화의 밤 행사 및 바자회



문화의 밤 행사를 마치고 함께 모인 회원들

지난 1980년 10월 11일 오후 7시부터 로스앤젤리스 한국 지부에서 한국의 고유 문화를 소개하는 모임과 바자회를 성황리에 끝냈다.

이 모임에는 약 250여명의 한국인 성도와 미국인들이 참여하였으며 특별히 메콩기 로스앤젤리스 선교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출연한 한국인 지부 형제 자매들은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상호부조회 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평소에 닦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민속 무용과 아울러 등요를 불렀고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도라지, 부채춤 등으로 한껏 흥을 돋우었다. 또한 1980년 남가주 미스 코리아로 뽑힌 장 정순 자매와 현재 로스앤젤리스 한국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최 인빈 형제의 장남인 최 경호 형제가 멋진 태권도 시범을 보여서 갈채를 받았다.

한편 바자회에서는 출품한 물건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미국인과 성도들이 성황을 이루었고, 상호부조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한국 음식은 인기가 높았다. 이날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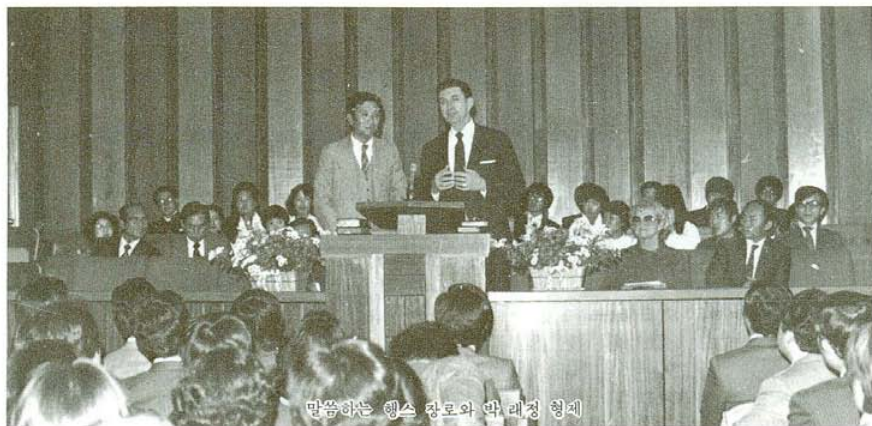
남가주 미스 코리아 장 정순 자매와 최 경호 형제의 태권도 시범

자회에 출품된 물품은 민속 공예품과 수예품 그리고 자개 제품, 매듭, 액자, 족자, 병풍 그리고 고유 의상 등이었다.

약 2시간 반에 걸쳐 가진 이날 모임은 로스앤젤리스에 거주하는 한국인 성도들이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한국 성도들이 더욱 가까와질 수 있는 뜻있는 모임이 되었다.

제150 번연차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참석한 한국의 신권 지도자들도 이 모임에 참석하여 발전하는 고국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말씀하는 행스 장로와 박 래정 형제

지난 11월 9일 1980년도 후반기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가 제 7와드에서 개최되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매리온 디 행스 장로의 감리하에 오전 8시 30분부터 전체 역원회가 열렸으며,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일요일 총회에서는 무려 1,40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말씀에서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은 동경 신전 헌납식에 참석하여 느낀 간증을 이야기하였고, 한국에도 멀지 않아 신전이 세워지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행스 장로는 한국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였으며 선교 사업과 계보 사업은 다 같은 구속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복음은 비활동 회원이나 죽은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개 개인의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였다. 서울 서 스테이크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과 독창은 대회 분위기를 한층 영적으로 이끌어 주었다. 한국 땅에 신전을 건립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소망과 자오를 새롭게 하는 훌륭한 대회였다. *

서울 북 스테이크 바자회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는 지난 10월 9일 오후 2시에 제 6와드에서 바자회를 가졌다. 개인의 창의력과 상호간의 협동 정신을 심어 주고, 근면 절약의 미덕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뜻있는 모임이었다. 수예품, 재봉품, 폐품 이용 제품, 완구류, 벽걸이, 꽃꽂이 등이 선을 보였다. 밀 반찬류와 짬 종류, 건조 식품, 젓갈류 등이 회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바자회에 출품된 많은 물건들이 염가로 판매되었다. *

서울 스테이크 대회



지난 1980년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제 4와드에서 열렸다.

토요일 저녁 신권 지도자 모임과 일요일 총회를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가 감리하였다.

스테이크 내의 와드/지부 신권 역원이 모인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과 한 인상 장로는 영적 말씀을 통하여 가정 복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 인상 장로는 장남 태회와 한조가 되어 가정 복음 교육을 한 경험을 신권 역원들에게 들려주어 큰 감명을 주었다.

또한 합당한 가정 방문은 비활동 회원을 활동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1월 16일 일요일 총회에서는 1980년 10월 4일과 5일에 열린 제150 반연차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신권 지도자들의 간증을 들었다.

동경 신전 헌납 모임에서 느낀 특별한 간증을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은 회원들에게 전하였고, 동경 신전에서 최초로 엔다우먼트를 받은 전 중철 형제도 간증을 드렸다.

이 모임에서 한 인상 장로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신권 역원을 지지할 것을 강조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과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생활할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독신 성인 형제 자매들에게 순결의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제 3와드의 신 일동 감독이 해임되고, 후임으로 유 재순 형제가 감독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장으로 수고 하였던 천 낙속 자매가 해임되고, 김 정숙 자매가 지지받았다. *

서울 북 스테이크 대회

1980년 후반기 서울 북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0월 11~12일, 서울 제6와드에서 한국-일본 지역 관리자인 요시히코 기꾸지 장로의 감리하에 "자녀의 마음을 자기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며"(교성 98:16)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선조의 구원을 위해 4대 프로그램과 신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였다.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는 "헌납과 희생의 기쁨"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 일요일 총회에서 기꾸찌 장로는 "이땅에도 곧 신전이 설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솔선해서 선교 사업을 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 스테이크 내의 8개 와드, 지부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80 한국 대회에서 예언자를 만나 보고 느낀 기쁨을 이야기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20명의 새로운 장로가 탄생되었으며, 서대문 와드에서 원효 지부가, 제 9와드에서 모래내 지부가 분리되었다. 원효 지부장으로는 김 정주 형제가, 모래내 지부장으로는 강 경구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

한국 서울 지역 모임

지난 1980년 11월 29일, 오후 3시부터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의 감리하에 서울 북 스테이크 제 6와드에서 「80년 서울 지역 모임」을 가졌다.

지역 모임에서 발표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역원을 위하여 토론 제목과 토론 지도자의 소속 스테이크 성명을 적어 놓았다. (순서 없음)

1. 대신권반 상호부조회 합반

현실적인 복지

(박 재암 형제, 동 스테이크)

2. 결혼 적령기에 이른 독신 성인에게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

(박 성진 형제, 북 스테이크)

3. 교회 청소년의 의식 구조

(서 회철 감독, 서울 스테이크)

4. 초등협회

효과적인 초등협회 운영 방안과 경건 프로그램의 중요성, 효과적인 활동 운영 (서 진원 자매, 북 스테이크)

(김 유경 " ")

5. 활동 위원회의 책임과 목적 조직 와드, 지부 활동 계획 수립 요령과 훈련

(손 병호 형제, 북 스테이크)

6. 아론 신권 정원회 운영 방안

(최 동일 형제, 북 스테이크)

7. 청년반 (이 회경 자매, 북 스테이크)

8. 독신 성인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 경구 형제, 북 스테이크)

9. 주일학교, 도서, 교사 자질 향상반

효과적인 주일학교 운영 방안

(한 민근 형제, 북 스테이크)

10. 대신권 합반

재활동 사업에 참여, 구도자와 우정 증진, 선교사 배출-자녀의 선교사 준비 (정 재순 형제, 북 스테이크)

11. 대체사반

4대 프로그램과 가계도

가족 기록서 작성 요령

개인 및 가족 일지 작성 요령

(남 영진 형제, 서울 스테이크)

12. 칠십인반

효과적인 우정 증진, 운영 방안

선교 사업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함

(김 병희, 동 스테이크 이크)

13. 장로반

효과적인 가정 복음 교육 운영 방안

새로운 회원의 교육

(구 중식 형제, 북 스테이크)

14. 상호부조회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

(김 성욱 자매, 박 은정 자매,

최 정 자매, 북 스테이크)

15. 감독단 집행 서기, 서기반

와드 신권 집행 위원회의 운영 및 훈련

와드 협의 평의회 운영 및 훈련

(김 영철 감독, 서울 스테이크)

16. 감독단반

효과적인 성찬식 운영 방안

접견 요령

(이 근혁 감독, 북 스테이크)

17. 집행 서기반

집행 서기의 임무, 군인 형제 관리

(최 순호 형제, 북 스테이크)

18. 서기반

새로운 기록 체제의 효과적인 운영

(최 동헌 형제, 서 스테이크)

19. 청남 청년, 독신 성인, 활동 위원회

음악 위원회 합반

효율적인 모임을 갖기 위한 활동 위원회의 역할

(손 병호 형제, 북 스테이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교회 교육 기구 소개 및 1981년 신입생 모집 안내

한 국
교회 교육 기구



대표 : 서 희 철

서울 동
신학 연구원



원장 : 김 수 영

서울 서
신학 연구원



원장 : 이 도 환

부 산
신학 연구원



원장 : 도 길 호

광 주
신학 연구원



원장 : 박 병 규

※ 특전 : 1. 본 신학 연구원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 교회 산하 대학에
유학할 시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함.

2. 일체의 수업료는 면제됨.

입학안내

교과과정

1. 입학 자격: 고졸 이상의 모든 회원 및 구도자. (단 소속 워드 감독 혹은 지부의 지부장 추천을 받은 자)
2. 제출 서류: 1. 본교 소정 양식의 입학 원서 1통.
2. 주민 등록 초본 1통.
3. 반 명함판 사진 3매.
3. 원서 접수처: 서울 동 신학연구원 92-0033
서울 서 신학연구원 33-1347
부산 신학연구원 49-4493
광주 신학연구원 2-0517
5. 원서 교부일: 1981. 1. 6~ 2. 27
5. 원서 접수 마감: 1981. 2. 27 (금) 오후 5시
6. 면접 일시: 1981. 2. 28 (토) 오후 6시
7. 면접 장소: 각 신학연구원 (필기 도구 지참)
8. 합격자 통지: 개별 통지함
9. 입학식: 각 신학연구원별로 실시

● 4년간 이수 과목

필수 공동 과목 (1)

학기 학년	1 학 기	2 학 기
1	신 약 I ① 예수와 사도들 ②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예수의 비유)	신 약 II ① 바울과 초대 교회 ② 일반 서신과 계시록
2	물문경 I (니파이일서~앨마서)	물문경 II (히라맨서~모로나이서)
3	구 약 I (구약의 이해와 가르침)	구 약 II ① 이해와 경건문학 ②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4	교리와 성약	교회역사와 값진 진주

※복음전도, A, C, M(해의 왕국의 결혼) 심리학 개론, 영어, 종교 음악, 체육 등 과목이 있음.

교양 및 특강 과목 (2)

경제학 · 경영학 · 정신위생학 · 구강위생학 · 법철의학 · 교육학 · 자연과학개론 · 기타 특강.

■ 졸업

4년간 소정의 필수 공동 과목과 선택 과목 5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능력별 졸업제도 이므로 수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